

민주, 예산안 협상 '법인세 1%p 인하' 중재안 수용

김진표 국회의장 절충안 제시 이재명 "민생경제 상황 고려 결단" 정부·여당에도 중재안 수용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1%p포인트(p) 인하' 등을 골자로 제안한 내년 예산안 중재안을 전격 수용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장의 중재안이 민주당의 입장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2일)과 정기국회 회기(9일)를 남긴 가운데 민주당이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국민의힘의 입장에 따라 예산안 합의 여부가 판가를 나게 됐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이번 예산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내리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현행 25%에서 22%로 3%p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김 의장은 또 다른 핵심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민주당 요구대로 삭감하되 일단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대입금을 채택하는 절충안을 함께 내놔다.

이 대표는 회견에서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이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어린이의 팔을 양쪽에서 잡고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가 당기면 결국 진짜 엄마가 손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해해 달라"며 "경제 상황이 빠르게 나빠질 것이므로 그에 대한 대비가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결단"이라며 "정부 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쉽게 받을 수 없는 안이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만큼 정부·여당도 (중재안에) 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것과 별도로 그간 추진해 온 '국민 감세안' 제안을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중소·중견기업 과세 표준을 10%까지 낮추는 안, 종합소득세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구간을 1500만 원으로 조정하는 안 등을 '국민 감세안'으로 제안한 바 있다.

회견에 참석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법인세) 1%p 감세, (행정안전부 경찰국 등 관련) 예비비 지출이든 (국민 감세안이라는) 김 의장과 정부가 민주당 제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검토된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전혀 접점을 찾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김 의장의 중재안은 수용하되, 여야가 견해를 좁혀왔던 민주당의 '국민 감세안'은 계속 협의해 관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원칙에 따라 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 예산안을 통과시킨 다음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여당에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예산안) 협상을 핑계로 시간을 끌면서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런 판단도 (의장 중재안 수용의) 근거가 됐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대표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제안한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초·재선 의원들 '당심 100% 전대 룰 개정' 찬성

잇단 간담회 갖고 의견 일치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이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 반영 비율을 100%로 높이는 '룰 개정'에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친윤(친윤석열)계와 정진석 비대위가 당심(黨心) 비율을 대폭 높이는 룰 개정에 드라이브를 건 가운데 초·재선 의원들도 이에 호응한 것이다.

국민의힘 재선의원 21명 중 13명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당 대표 선거를 '100% 당원투표'로 치러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재선의원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재선 의원들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원 뜻에 따라 지도부가 구성돼야 한다고 의견 일치를 봤다"며 "100% 당원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만장일치로 결정됐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전당대회가 늦어도 3월 12일까지는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당헌 개정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에 어느 한 분도 반대하는 분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날 재선의원 간담회에 13명만 참석했지만, 불참 의원들 일부도 정 의원에게 결정을 위임했기 때문에 사실상 만장일치 결론이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부분에도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했다.

같은 시각 국회에서 열린 초선 의원 간담회 결론도 '당원투표 확대'였다. 이날 간담회에 63명 초선의원 중 27명이 참석했다.

이인선 의원은 브리핑에서 "참석자 전원이 당원투표 비중을 확대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했고, '당원투표 100%'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전했다.

다만 이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룰을 바꾸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극소수 의견은 있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재형 의원의 경우 이날 간담회에서 룰 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의석의 73%를 차지하는 초·재선 의원들이 '당심 100%'에 의견 일치를 보이면서 지도부의 전대 룰 개정 추진에 힘이 실리고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연내에 전대 룰에 관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마친다는 목표를 세우고 실무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지지율 2주만에 2%p 올라 34%

NBS 조사...부정평가 56%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2주 사이 2%포인트(p) 올라 30% 중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대표 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 한다고 한 응답자의 비율은 34%였다.

2주마다 시행되는 NBS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 11월 3주차에 29%로 떨어졌다가 직전 조사인 11월 5주차에 32%로 반등했고, 이번 조사에서 더 올랐다.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이전 조사보다 4%p 떨어진 56%였다.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중에는 '결단력이 있어서'가 42%로 가장 많았다. 해당 응답은 2주 전보다 13%p 상승했다. 이어서

'공정하고 정의로워서'가 32%, '유능하고 합리적 이어서', '공약을 잘 실천해서'가 각각 7%를 기록했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중에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가 43%로 가장 많았고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가 25%로 뒤를 이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신뢰하는지를 묻는 말에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38%로 2주 새 2%p 늘었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p 하락한 56%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6%, 더불어민주당이 30%, 정의당이 5%였다. 2주 전보다 국민의힘은 4%p 올랐지만, 민주당은 4%p 하락해 순위가 뒤바뀌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20.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광록 기자 kroh@

정부 "강제징용 배상 해법 조만간 대토론회"

"양금액 할머니 서훈 내년에 제대로 하자고 의견낸 것"

정부는 15일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마련을 위해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개 대토론회를 조만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외교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액 할머니의 서훈 추진과 관련,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

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최근 국립외교원과 세종연구소가 준비하던 '한일관계 개선 민관대토론회' 개최 연기 요청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소 열흘 전 사전 공지를 통해 강제징용 소

송과 관련이 없어도 관심 있는 모든 분이 와서 들으실 수 있게끔 준비 중"이라며 "형식, 토론회 주최, 방식, 장소 등을 다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개 대토론회에서 그간 강제징용 민관협의회에서 논의돼 좁혀진 해법을 논의하는지에 대해 "향후 형식을 확정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외교부는 그간 강제징용 배상 해법 마련을 위한 국내 의견 수렴 과정과 일본과 협상 경위에 대해 설명한 뒤 발제, 토론, 방청객 질의 등의 순서로 공개 토론회를 준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제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능!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 전체 리모델링
- 칼라강판 지붕공사
-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 전원주택신축
- 공장신축
- 징크판넬시공
- 창호(삿시)교체
- 농막
- 옥상스틸방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 서구 서항2길3(서항동)